

2023. 11. 19

제114권 47호

주일 1·2부 예배

오전7:30(1부),	오전9:00(2부)	인도자:신동영목사(1부), 주상일목사(2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송영찬송	찬양대
찬송 *서서 9장	다같이
교독 17
고백의기도
사죄의선언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앞아서 327장
기도	I부 임원수 장로 II부 전세종 장로
봉헌 135장	봉헌위원
봉헌송 *서서 213장(4절)	다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교회소식 *앞아서	담임목사
찬양 I부-그렇게 살아가리	살롬찬양대
찬송 II부-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호산나찬양대
찬송 637장	다같이
성경 잠언15:8~9(구약P.926)	담임목사
설교	..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	담임목사
성도의교제 *서서 55장	다같이
축도 송영	담임목사

주일 3부 예배

오전10:30 인도자:우경창목사

찬양 *서서 송축해 내 영혼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앞아서 327장
기도	윤광문장로
봉헌 135장	봉헌위원
봉헌송 *서서 213장(4절)	다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교회소식 *앞아서	담임목사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글로벌아찬양대
찬송 637장	다같이
성경봉독 잠언15:8~9(구약P.926)	담임목사
설교	담임목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교제 *서서	다같이
파송과위탁	다같이

인도자 :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회 중 :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찬양	주가 일하시네	다같이
축도	담임목사

†내주기도 : I부 - 최성연 장로 / II부 - 김완수 장로 / III부 - 서광수 장로
 청년예배 - 김유정 청년 / 찬양 - 강은영 집사 / 수요 - 김태남 권사
 †이달의 강단 꽃장식 : 표현창 이상미 권영대 권태섭 김인숙 권영광 김수진 권영선 권도형

*** 11월 예배위원 -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안	내	봉	헌	차량안내		
I	전세종	김은숙	표현창	정태순	손대호	권대기 김종관	
II	최성연	손향숙	이금란	원지영	윤수선		
III	서정자	김신호	김경옥	윤오희	임을순	정은영	김주현 박수권
IV	김상용	곽정열	김성희	박현주	박정숙	김애량	고예란 신미영
			조영옥	최광옥	황유순	김나현	김효진

주일4부예배 (오후12:00)

경배와 찬양 - 소리엘찬양단 / 목회기도·봉헌기도 - 담임목사
 설교 - 잠언15:8~9(구약P.926) /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 담임목사

주일5부예배-청년예배 (오후1:45) 인도자:정준환목사

기도 - 조예경청년
 설교 - 사도행전20:22~32(신약P.223) / 멈출 수 없는 사명 / 정준환목사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3:00) (남성합창단·백합중창단 헌신예배) 인도자:이종길장로(남성합창단부단장)

경배와 찬양 - 새롭찬양단 / 찬송 - 384, 315, 54 / 기도 - 서금숙권사(백합중창단단장)
 성경 - 시편105:11~23(구약P.879)-강은숙집사(백합중창단지도) / 하나님의 때 / 조경화목사

수요오전예배 (오전10:30)

경배와 찬양 - 예음찬양단 / 은혜나눔 - 동영상
 설교 - 레위기23:39~43(구약P.183) / 구원의 그날을 잊지 말라 / 정승호목사

수요저녁예배 (오후7:00)

경배와 찬양 - 르비딤찬양단 / 기도 - 박옥명권사 / 은혜나눔 - 김영삼성도 / 찬양 - 다비다찬양대
 설교 - 열왕기하16:10~16(구약P.589) / 76.우리아-권력의 시녀인 제사장 / 담임목사

묵상노트

“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 (잠언 15:8~9)

- 하나님의 _____ (8)
 묵상을 위한 질문) 비록 하나님은 제사(예배)를 원하시지만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악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다가 특별한 시간에 드리는 제사(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하나님의 _____ (9)
 묵상을 위한 질문)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결정한 대로 길을 걷는다. 이와 같은 악인의 길을 하나님은 미워하실 뿐 아니라 결국 악인은 망한다. 반대로 공의를 따라 걷는 의인은 공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견고 있는 공의의 길이 있는가?